

국회는 학교비정규직 예산 책정하라

- 국회 앞 노숙농성 진행 중 -



학교비정규직의 잘못된 임금체계를 시정하고자 호봉제 실시와 호봉 간격 1년에 3만원 인상(정규직 대비 50%)을 수정 요구하였으나 교육부는 장기근무가산금만 1년에 1만원 지급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항의하는 교육부 투쟁을 전개하는 반면 교육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에 우

리의 요구를 전달하여 12월 18일 국회 교문위에서 장기근무가산금 1년에 2만원 인상이 의결되었다.

지금 국회 앞에서는 장기근무가산금 2만원안을 예결위에서도 통과시키기 위하여 지난 12월 10일부터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정규직과의 차별을 좁히기 위하여 학교비정규직 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투쟁은 계속 될 것이다.

호봉제 실시! 고용안정쟁취! 학교비정규직 파업대회를 열다

올해 5월부터 진행된 교육부 교섭이 아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역교육청도 마찬가지다. 교육부의 성실한 단체교섭을 촉구하기 위해 학비연대 3개 노조(전국여

성노조, 전회련, 전국학비노조)는 10월 14일부터 11월 8일까지 전국적으로 쟁의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46,691명 중 82.9%가 투표하여 유효투표 대비 93.2%로 가결되었다. 그만큼 조합원들은 처우개선 요구가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고용안정은 보장하겠으나 처우개선은 예산의 문제로 못하겠다는 것이다. 정규직은 해마다 호봉이 올라가지만 비정규직은 1년이나 10년이나 기본급이 똑같은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하반기 동안 학교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학교비정규직을 차별에서 구출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9월 25일부터 매주 수요일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에서 호봉제 실시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하였다. 또한 11월 29일 전국적으로 파업을 진행하고 교육부 앞에서 파업대회를 열었으며, 12월 6일에는 대구교육청 앞에서 파업대회를 열었다.



11월 29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광화문 교육부 앞에서 '박근혜정부 공약 파기 규탄 및 호봉제 실시! 고용안정 쟁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파업대회' 개최

2013년 여성노조 한해를 돌아보며 우리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투쟁중

2013년 12월, 벌써 1년이 다 갔습니다. 2013년 시작이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봄, 여름, 가을을 느낄 사이도 없이 지나갔고 이제 다시 겨울이 돌아왔습니다. 계절마다 무슨 투쟁을 했더라 하고 되새겨보는 우리는 전국여성노동조합의 자랑스러운 조합원들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나 바쁘게 살고 있는 것이지요.

학교비정규직 투쟁이 연초엔 고용안정투쟁으로, 뜨거운 초여름엔 교육공무직과 호봉제 쟁취투쟁으로, 한 여름엔 청와대 앞과 교육부 앞에서, 초겨울엔 총파업, 현재는 국회 앞에서 예산 확보 철야 노숙농성투쟁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과 교섭으로 전북, 광주, 경기에서 단체협약을 맺었고 또 새롭게 교섭을 시작한 지역도 교섭과 투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학교비정규직을 조직하고 13년동안 꾸준히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삶을 변화시켜온 여성노조는 올해도 투쟁으로 교섭으로 큰 몫을 해냈습니다.

청소조합원들의 2013년도 뜨거웠습니다. 서강대, 목원대, 경북대, 인하대, 인



하전문대, 인천대, 연세대 송도, 법원 모두 이름을 불러드리고 싶은 여성노조의 큰 언니 조합원들의 투쟁의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도 그 힘을 발휘하여 우리뿐 아니라 400만명의 임금을 올리는 일을 해오고 계십니다.

보훈처 앞에서 6년째 투쟁하고 있는 88CC 경기보조원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보훈처는 세종시로 이사하지만 어디로 가도 쫓아가 원직복직과 노동조합활동 보장을 해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줄여 최저임금을 내리려는 시도에 맞서 하얏트호텔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일자리를 시간제로 쪼개어 임금을 낮추려는 정부의 시도에 대해 더욱 많은 투쟁이 예상되는 갑오년 2014년입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2013년이지만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미래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과 내 옆의 동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도 우리는 일할 것이고 싸울 것이고 또 웃을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나지현

| 서울 | 서강대분회, 차나눔 행사 및 교섭진행



서강대분회는 일년에 두 번 차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3월 새로운 학기시작 때와 11월 입시 즈음해서 추워질 때이다. 차 나눔은 많은 학생들과 교수, 교직원들이 기다리는 행사 중의 하나다. 11월 12일 서강대 분회는 학생과 교수, 교직원들에게 무료로 사랑의 차 나눔 행사를 하였다. 각 관별로 조합원들이 만든 안내 문구는 알록달록 예뻐고, 밤새 진하게 달인 대추차는 생강과 잣등을 넣어 다양한 맛을 내었다. 울무차와 커피는 추운 날씨에 학생들에게 인기 짙었다. 또한 동아리 학생들이 차나눔 행사를 함께 진행하여 훈훈한 사랑이 전해지는 날이었다.

12월 5일 단체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12월 12일 2차 교섭을 진행하였다.

지난 9월 노사협의회 때 논의한바 있는 ▲ 정년 ▲ 대청소시 간식 지급 건을 논의하였고 정년은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12월 23일부터 대청소시 간식은 회사가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차기 3차 교섭은 1월 3일이다.

| 전북 | 여성노조 전북지부 11월 29일 총파업 진행하다



지난 11월 29일 전북지역 학교비정규직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총파업을 진행하였다.

호봉제는 전국적으로 교육부에서 진행 한다 하더라도 수당 등은 지역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4차에 걸친 임금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전북도교육청은 예산이 없다라는 이유로 임금교섭을 진행하지 않았다. 전북지부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노동쟁의조정을 거친 후 조합원 쟁의찬반투표를 진행하여 파업결정을 하였다.

전국학비연대 3개 노조 동시파업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논의 결과였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아 조합원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기도 하였다.

전북지부는 지부장님이 인도국제교류 때문에 부재중인 상황이기도 하였다. 이로인해 조합원들이 불안해하였지만 단체교섭에서 근로시간면제자로 2명이 상근자로 올라와 지역 및 학교방문 등 직접 발로 뛰며 조합원을 조직하고, 파업준비 등도 꼼꼼히 챙겨, 70여개 학교 조합원들이 파업하였다.

도교육청에서 9시에 집결하여 사전결의대회를 진행

우리는 대한민국의 乙도 아닌 丙이고 丁이다 88CC분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실태 증언대회에서 증언 사용자에게 책임을!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을! 산재보험 전면적용!

지난 11월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실태 증언대회에 88CC분회가 참가해 골프장경기보조원 노동실태를 증언하였다. 회사 눈치 보라 손님 비위 맞추라 죽어나는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아보자고 노조를 만들었지만 노조 간부와 조합원 대다수가 해고를 당해 원직복직투쟁을 하고 있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법적지위도 다투고 있는 실상이다. 이날 학습지가정방문교사, 대리운전기사, 화물운송노동자, 건설기계굴삭기기사, 레미콘기사, 간병인, 마필관리사, 보험설계사, 타워크레인설치해체, 덤프기사, 보조출연자,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해당 일에 대해 증언하였다.

증언내용은 "사용자는 보다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노동자와 위장 계약을 하여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을 강요하고 있으며, 사용자로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반면 노동자는 헌법에 보장된 그 어떤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무한 착취구조에 묶여 있다. 대한민국의 乙도 아닌 丙이고 丁이다. 이러한 특수고용노동자는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추



세이며, 노동자가 '노동자'로서 법률적 인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기에 국회는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노조법2조와 산재보험법5조를 개정하여 특고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여성노조, 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 은수미 국회의원, 장하나 국회의원, 민주당 乙지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민주화 국민운동본부로 특고노동자의 노동실태를 고발하는 이번 증언대회를 계기로 국회가 시급하게 노조법을 개정하여 250만 특고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 후 차량 5대로 서울 상경투쟁을 진행하였다. 전날 전국적으로 눈이 많이 와 추운 날씨 때문에 참여율이 낮으면 어떡하나 걱정과 달리 많은 조합원들이 파업에 동참을 하였다.

그동안 너무 멀어서 서울집회참여가 힘들었던 무주, 남원, 순창 등 지역 조합원들은 새벽밥 먹고 참여하는 열의를 보였다. 무주 같은 경우는 조직적으로 지역 전체가 파업을 결의하여 조합원 대다수가 서울 상경투쟁까지 결합해 조합원들의 단결된 힘도 보여주었다. 그 결과 무주지역 나머지 학교도 노동조합 가입이라는 성과도 이루어졌다. 이렇듯 많은 학교비정규직 선생님들이 투쟁에 동참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호봉제가 빨리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경기 | 새 상근자 채용 소식 및 과학실험원 직종협의 소식

11월 새 식구 조영신 조직부장이 상근자로 채용되었다. 조영신 조직부장은 한전노조 간사, 재능교육노조 현장 경력을 갖고 있다. 많이 젊어서 앞으로 경기지부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이다. 12월 중반 한 달 보름을 같이 생활하면서 지켜보니 더 많은 활동 속에서 더 많은 능력을 보여줄 것이 기대된다. 여성노조와 함께 즐거운 생활도 기대한다.

12월 13일 경기지부 사무실에서 과학지회 선생님들과 교육부 직종협의 단체교섭의 한 직종인 과학실험원 직종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 매

일 진행하고 있는 1인 피켓시위 관련내용으로도 협의하였다. 혁신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학교 현장에서 과학 지회가 나아갈 방향 모색과 업무통합관련, 수당요구에 대한 난상토론도 하였다. 저녁 6시부터 시작한 회의가 10시 30분을 넘기면서도 진행되었다. 만족할만한 회의의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나 여성노조경기지부에서 과학지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첫 단추가 끼워진 회의였다. 앞으로 더 많은 회의와 만남을 통한 경기지부 과학지회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 인천 | 하얏트리젠시 인천 청소노동자 최저임금위반 투쟁



여성노조 인천지부 하얏트호텔분회는 매주 금, 토, 일 저녁 6시부터 인천 하얏트호텔 앞에서 밀린임금을 지급하라며 투쟁하고 있다. 하얏트호텔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은 심야(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에 8시간 일을 하는데 회사는 6시간짜리 허위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노동자들에게 6시간의 임금만(기본급 87만원)을 지급해 왔다. 이는 명백한 임금착취다. 수년동안 수의 계약을 통해 계약을 연장해 왔으면서 원청은 이 사실

“인도 다녀와라” 조직의 부름에 한걸음에 다녀왔던 인도

11월 19일 서울 출발, 인도 국제교류 활동 후 귀국은 29일에 했어요. 인도가 넓기는 넓더라고요. 농촌지역노동자를 만나러 갔을 때 조금만 이동하면 된다고 했는데, 차로 1시간 넘게 이동했어요. 거리에 대한 개념이 우리와 많이 달랐어요~

‘전세계 노동자여, 연대하라!’라는 말처럼, 국내 노동자간의 연대를 넘어, 가난하고, 힘없는 여성노동자들의 연대를 위해 인도로 떠났습니다. 인도일정이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은 걸까 생각되지만 인도에 대한 수많은 환상과 꿈을 안고 말이죠.

비행기 타고 장장 15시간 후 처음 도착한 곳은 인도 서북부지역의 상업도시로 유명한 아메다바드입니다. 인도의 여성노동조합인 SEWA 본부가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 방문 도시는 인구 1억 2천명인 ‘인도의 뉴욕’과 같은 도시인 뭄바이로 어디를 가든 사람들로 넘쳐나고 활기넘치는 도시였습니다.

우리는 10일간의 인도 일정에서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거리행상 여성노동자, 가내수공업 여성노동자, 담배공장 여성노동자, 화려한 도시의 이면에 숨어 있는 건설 여성노동자, 쓰레기 줍는 여성노동자, 베틀 여성노동자, 수공업 여성노동자, 돌봄 여성노동자, 호텔 여성노동자 등 가족의 끼니를 해결하고자 일하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직종의 여성노동자들은 생존과 가난의 악순환을



11월 20일, 여성노조 국제교류팀과 인도 Street vendor(행상인) 노동조합 위원장 및 조직가와 함께 기념 촬영.

끊고자 SEWA 노동조합에 가입해 조합원으로 가열차게 투쟁도 하고 있었습니다.

생김새는 우리와 조금 다르지만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 인도의 여성노동자들과의 국제교류를 통해 함께 정을 나누고, 투쟁의 경험도 공유하면서 서로의 힘도 주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신분제도가 살아있고 남녀 불평등이 가득한 인도에서 인도의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 자신의 요구를 자신의 목소리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들에게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각자의 나라에서 차별받고, 소외되는 여성노동자들을 위해 열심히 투쟁하자”고 말이죠.

- 대경지부 사무국장 심명희

을 몰랐다고 한다. 더구나 노동조합의 정당한 투쟁을 두고 호텔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노동조합을 협박하기 까지 한다. 이에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는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최저임금을 위반한 용역회사 (주)HDC아이스비스와 원청인 하얏트호텔을 최저임금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여성노조 인천지부 하얏트호텔분회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때 까지, 6시간짜리 근로계약서가 사라질 때 까지 끝까지 투쟁 할 것이다.

| 대구경북 | 대구지역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진행



지난 12월 6일 대구시교육청 앞 마당을 대구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득 메웠다. 11월 29일 전국총파업에 이어 대구지역 총파업 현장은 조합원들의 힘찬 투쟁 열기로 후끈 달아 올랐다.

보수의 중심답게 대구시교육청은 공동단체교섭에서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그런 사유로 진행된 총파업 임에도 3일간 매일 파업 참석자를 보고 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부당노동행위도 일삼아 대구지역 학교비정규직의 분노를 더욱 자극하였다. 총파업에 참석한 전국여성노조 조합원들은 “하루 파업으로 어디 시교육청이 말을 듣겠냐?! 뭐라도 될려면 한달은 해야 한다”며 투쟁의 의지를 높였다.

이날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지 기자회견을 하여 학교비정규직의 총파업에 힘을 실어주었다.

총파업 결의대회 후 참가자들은 새누리당으로 행진하였고 학교비정규직 호봉제 예산을 가로막는 새누리당을 규탄하였다.

| 울산 | 교과교실 행정실무원을 아시나요? 무기근로회피로 인해 30명 계약해지

교과교실행정실무원은 중·고등학교에서 2009년 시작으로 2011년부터 확대하여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단위의 수업의 다양화와 교과운영방식의 전환을 통한 학교경쟁력 강화에 의해 만들어진 사업이다. 기간제로 한시적사업이라고 하지만 2017년부터 무기근로전환을 할 예정이란다. 그러면 그동안 계약해지된 행정실무원에 대한 대책은 없고, 학교마다 무기근로전환회피

로 인해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다. 울산교육청은 예산이 삭감되어 더 이상 교과교실행정실무원이 필요없다는 것이다.

울산은 현재 47명이 근무중이며, 계약해지가 30명이나 되는 것이다. 교과부나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필요에 의해 채용을 했지만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 나가라는 안일한 태도와 정책 때문에 교과교실행정실무원들은 고용불안에 있는 것이다. 이에 울산지부는 교과교실행정실무원조합원들과 함께 강력하게 고용안정투쟁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 울산 | 알기쉬운 요양보호사 노동법교실을 진행



여성노조 울산지부는 요양보호사 조합원 권리 찾기를 위해 10월 10일~11월 21일까지 “알기쉬운 요양보호사 노동법교실”을 격주로 진행하였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기관에서 시키는 일만 해왔지 자신들의 권리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몰라 헤메왔고, 요양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리침해와 노동자의 기본권도 지켜지지 않는 요양현장을 떠올리면서 많은 분노도 일으켰지만, 알기쉬운 노동법교실을 하면서 요양보호사가 현장에서 존중받고 노동자의 최소한의 기본권이 지켜지기 위해 열심히 교육을 들어야겠다는 마음가짐이 앞서는 교육이었다. 지부는 앞으로 요양보호사들을 위해 권리의식을 높여나가고 처지와 개선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교육과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 경남 | 학교비정규직, 경상남도 교육청 단체교섭 일부합의 및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제정



지난 4일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여성노조 경남지부 외 두 노조)와 경남교육청이 단체교섭 일부내용에 합의하였다. ▲ 명절휴가비(설, 추석) 각 10만원 인상(2014년 40만원) ▲ 고용보장이다.

‘경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경남도교육청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조례가 10일 도의회 상임위에 이어 19일 제 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확정되었다. 시행 예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이다.

[연재] 시간제가 조각내는 여성노동자의 시간 ③

〈압축노동 : 시간제노동의 두 얼굴〉 토론회 개최 여성노동자 관점에서 '비례보호원칙'의 허상과 저임금 고착화를 진단하다



12월 18일 국회에서 여성노조와 민주당 남윤인순, 은수미, 장하나, 한정애 국회의원,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압축노동 : 시간제노동의 두 얼굴” 토론회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에 걸쳐 뜨겁게 진행되었다. 토론 시작 전 남윤인순, 은수미, 한정애 의원은 발언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시간제 확대 정책이 여성노동자의 삶을 고강도 노동과 저임금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지금 같은 시간제 확대 정책을 중단하고 시간제 노동에 대해서는 더 두터운 보호가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여성노조는 시간제 일자리의 양적 확대와 수치 계산에 몰두하고 있는 지금의 정부 정책을 여성노동자의 시각에서 점검하고 정책을 제언하기 위해 하반기 동안 조사 사업을 벌였다. 본 토론회 발표자인 남우근 한국비정규센터 정책위원과 이수정 노무사는 시간제 노동이 강요하는 저임금 문제를 핵심적으로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구체적 삶을 고려하지 않고 산술적 계산에 기초한 고용노동 정책을 짚어보며 “인간을 쪼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시간제 노동자는 교통비를 4분의 1만 받아도 될까? 명절은 절반만 준비하면 될까? 이른바 ‘시간 구겨넣기’와 ‘임금 쪼개기’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간제 노동의 구체적 현실을 짚으며 비례보호원칙의 허상과 저임금 고착화를 여성노동의 핵심적 문제로 짚어내고자 한 것이다.

2013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 따르면 시간제 노동은 저임금(시급

7,533원으로 전일제의 59.4%), 다수의 최저임금 미만자(시간제 노동의 37.3%가 최저임금 미만자), 짧은 근속기간(시간제 노동 66.3%가 근속기간이 1년 미만), 기업규모의 영세성(시간제 노동 65.4%가 1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등 질 나쁜 일자리 속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시간제를 선택하는 이유라는 시간 활용의 유리함은 저임금 때문에 투잡을 뛰거나 전일제에 준하는 시간 동안 일하는 상황이 되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었다.

‘압축노동’은 2.5~7.5시간의 노동시간을 중심으로 그 외의 시간에 나머지 일을 하게 만드는 시간 ‘구겨넣기’와 ‘쪼개기’의 일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일터에서나 집에서나 쉬고 싶어도 대체인력이 없이 일해야 하고 쪼개진 시간 동안 압축적인 노동을 경험해야 하는 여성노동자의 삶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시간제라는 이유로 임금을 쪼개어서 저임금을 당연시하고 수당 쪼개기, 사회보장 제외 등을 정당화하는 현 상황을 되짚으며 현 정부가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노동시간 비례 대우’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른바 시간제에 대해서는 더욱 두터운 보호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제를 악용하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업무 외 시간에 일을 시키면서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 ‘그림자 노동’, 노동시간 중간에 지나치게 긴 휴게시간을 두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쪼개기’ 등이 그것이다. 노동시간 비례 보호만 외쳐서는 시간제노동의 저임금 고착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특히 여성노조 인천지부 하얏트호텔 이상숙 분회장이 현장 발언을 통해 실제로 8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임금은 6시간 밖에 쳐주지 않는 현실을 이야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토론자로 나선 신경아 한림대학교 교수,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처장도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이 여성노동자 고용률 및 노동조건 개선, 일생활 균형 등 그 어떤 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을 여러 자료를 통해 제시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개진했다. 그에 대해 고용노동부측 토론자로 나선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지원단 조충현 서기관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저임금 문제 등의 우려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발표자들은 ▲ 최저임금 현실화 ▲ 근로기준법, 사회보험 적용 확대 ▲ 차별금지 조항 실효성 제고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효성 제고 ▲ 연장근로 규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전반적 고용의 질 향상 방안 마련 ▲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더욱 두터운 보호 등의 정책을 제언했다. 여성노조는 앞으로 시간제 확대에 맞서 저임금 및 노동의 질 악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특히 시간제 악용에 고통 받는 여성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공 고

전국여성노동조합 제 15 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아 래 -

1. 일시 : 2014년 1월 18일(토) 11:00 - 17:00
2. 장소 :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
3. 안건
 - 1) 2013년 사업보고 및 평가(안) 승인 권
 - 2) 2013년 결산·회계감사 결과 승인 권
 - 3) 2014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권
 - 4) 기타

2013. 12. 18.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나지현

